

LG-호남, 현대 1-2단지 분할 확정

1단지 EG 12만5000톤 LG 인수 ... 2단지 SM 25만톤은 호남 인수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는 LG가 1단지, 호남이 2단지를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LG화학(대표 노기호)과 호남석유화학(공동대표 이영일·신동빈)은 6월23일 공시를 통해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현대석유화학의 인수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현대석유화학의 LDPE, HDPE, PP 부문의 관련사업 일체를 제1단지 관련사업들과 제2단지 관련사업들로 분할해 각각 인수·경영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양사는 2004년 말까지 현대석유화학의 제1단지를 LG화학이, 제2단지는 호남석유화학이 각각 분할해 경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추후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1단지에 위치한 EG 12만 5000톤은 LG화학이, 2단지의 SM 25만톤 플랜트는 호남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LG화학이 1단지를, 호남석유화학이 2단지를 분할 인수키로 확정되면서 LG화학은 에틸렌 생산능력 120만톤, 호남석유화학은 130만톤의 국내 석유화학 양대 축으로 부상했다.

대산에 위치한 현대석유화학은 1991년 1단지가 에틸렌 생산을 시작했으며, 2단지는 1997년 가동에 들어갔다.

<화학저널 2004/07/26>